

코스피	-28.38	2,724.62
코스닥	-15.31	855.06
환율(원/달러)	+9.90	1,354.90

휘발유(원/리터)	1694.86	▼ (-0.47)
경유(원/리터)	1534.91	▼ (-0.98)
LPG(원/리터)	969.87	▲ (+0.01)
(전국 평균)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미넷
WTI(달러, 17일)	80.06	▲ (+0.83)

전력구입비 감축 추진...발전사 "희생양"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줄어든 반면 전력판매수입은 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은 "또 발전사 쥐어짜기"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입비는 전년 대비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전력판매수입은 17조원 이상 늘어났다.

올해도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흑자다. 1분기 매출은 23조 2927억원으로 작년 대비 7.9% 증가했다.

다만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공개석상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력구입비 감축 등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제연료가격 하락으로 인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 적자가 40조원 넘게 쌓여있는데다 2027년부터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도 늘려야 하는 채권발행 한도까지 다시 2배로 낮아지게 되는 만큼 소매 요금을 올리거나 도매가를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 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재무악화 개선에 실패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하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올리지 못한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하반기 흑자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매요금이 통제되지 결국 도매요금 축소 기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전력구입비 절감 계획도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전력예비력을 5.4GW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ICT기술을 활용하면 예비력을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럼 전력구입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모아보니 4조1000억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한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강조
전력구입비 절감방안 계획도 마련
"ICT기술 활용 전력예비력 낮춰"
업계 "중간배당 이어 또 쥐어짜기"
실행 땀 상당기간 '정영년' 불가피

까지 산업부, 전력거래소 등과 확정한 금액은 2조2000억원이다. 올해 이정도 전력구입비를 낮춰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는 불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발전기업 관계자는 "이미 정산조정계수는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에는 중간배당까지 먼저 가져갔는데 여기서 또 쥐어짜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해 거래가 이뤄진다. 낮은 소매전기요금을 고려하면 한전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

는 구조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자회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한전의 재무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장치로 사용돼 왔다.

여기에 이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SMP가 급등하자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를 시행해 발전사의 수익을 강제로 낮추는 바 있다. 현재도 기존의 정산 구조를 수익성에 부정적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민자발전사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

GS동해전력은 최근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손실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직접 회사 사장이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

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기업이면서 일종의 규제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소매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적자와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 재무적 차액계약, 지역별 LNG 발전 전기도매가격 차등제, 열병합발전 등에 대한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의 방침이 실행될 경우 상당기간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발전사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판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사실상 정부의 실패인데 이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경기에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워 총괄원가 보상원칙 적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5월 셋째 주 정기 여론조사



尹, 국정수행 긍정 31.4%...0.8%p ↓

3주째 올랐지만 총선이후 홍보

민주 지지율 34.5%...6.1%p ↓

국힘 35.0%...4주만에 재역전

조국혁신당 13.5%...1.0%p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그 오름 폭은 오차범위내였다. 4·10 총선 후 오차범위 내에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후 5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 없는 계급이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주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재역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소폭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나흘간(석가탄신일 5월 15일 제외) 조사해 19일 발표한 5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1.4% (매우 잘한다 14.4% / 잘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전주 30.6%보다 0.8%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5% (잘못하는 편 11.5% / 매우 잘못함 54.0%)로 1.1%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해 35.0%, 더불어민주당은 6.1%포인트 하락하며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양당 간 차이는 지난주 7.7%p에서 0.5%p로 크게 줄었다.

양당 정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13.5%를 기록, 1.0%p 높아지면서 지난주에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주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의 지지율 일부는 조국혁신당이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1.2%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8%p 낮아진 1.3%, 진보당은 0.8%p 높아지면서 1.3%로 새로운미래와 동률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1.7%p 증가한 6.8%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3~17일 나흘간, 16~17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매우 잘 못함 54.0%)로 1.1%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전세 보증사고 2조 육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체대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세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이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관련기사 11면> ▶

DGB대구은행도 가세...은행권 '기업금융' 경쟁 치열해진다

기존 은행권에 뛰어드는 새 플레이어들이 '기업금융'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DGB대구은행과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는 도전자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금융 강화를 목표로 세 영업망 구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기업금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의 등장까지 더해져 기업금융이 은행권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은 대구은행은 중소기업들에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회사가 기업들과 거래할 때 신용등급·재무비율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거래나 관찰 등을 통해 얻은 비계량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정량적인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 역량 등을 파악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중신용 사업자들에게

중소 찾아가는 '관계형 금융' 추진
미래 제4인행도 소상공 특화 강조
시중은행들도 기업금융 확대 사할

도움이 된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며, 57년간 축적해 온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관계형 금융, 포용금융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업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또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발표하며 "대구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기본이 되는 개인금융은 물론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산 확대를 통해 전국은행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다.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들도 기업금융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유력 후보로 여겨지는 한국신용데이터(KCD) 컨소시엄과 더존비즈온이 추진하는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인터넷은행 등장에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분위기였지만, 기업 특화 인터넷은행이란 점이 눈길을 끌며 KCD 컨소시엄엔 우리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엔 신한은행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개인금융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고 있는 기존과 같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다면 은행들이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기업 특화 인터넷은행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 같다"며 "대형은행들도 인터넷은행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은행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기업금융 확대에 사할을 걸고 있다. 개인금융이 이미 포화상태

에 이른 데다 정부 규제에 개인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주기 어려워 기업금융을 돌파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44조 8235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563억원(0.7%) 늘었다. 지난해 말(630조8855억원)과 비교해 올 들어 4개월 동안 13조9380억원(2.2%)이 증가했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1분기 실적 발표 기업설명회(IR)에서 기업금융을 설명하며 "1분기에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면서 저희의 거점지역인 부울경 지역에도 들어왔다"며 "전반적인 수요, 경쟁 압력 등을 고려하면 원화 대출 성장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있어 새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반쪽짜리' 비판

방법론·규모 등 감안시 실효성 지적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다는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키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정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횡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횡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내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워내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워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리다 내가 살 게 없지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분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민태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계 헤터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5@ekn.kr

▶기사 2면에 계속

통신3사, R&D 공격적 투자...“신사업 육성, 글로벌 기업 도약”

규모는 SK텔레콤·증가율은 LG유플러스가 ‘톱’...KT는 소폭 ↓
공동 분모는 ‘AI’...KT 차세대 기술·LGU+ 콘텐츠·플랫폼 강세
‘탈통신’ 강화...SK텔레콤·LG유플러스 다음달 LLM 출시 예정

통신사업 성장 정체가 심화되면서 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에 힘을 주고 있다. R&D 투자 규모는 SK텔레콤(SKT), 증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높다. 이들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차세대 기술 투자 비중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합산 영업이익은 1조2259억원이다.

이 중 KT가 506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SKT(4985억원)와 LG유플러스(2209억원)가 뒤를 이었다. SKT와 KT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각각 0.8%, 4.2% 늘었지만,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상승 여파로 15.1%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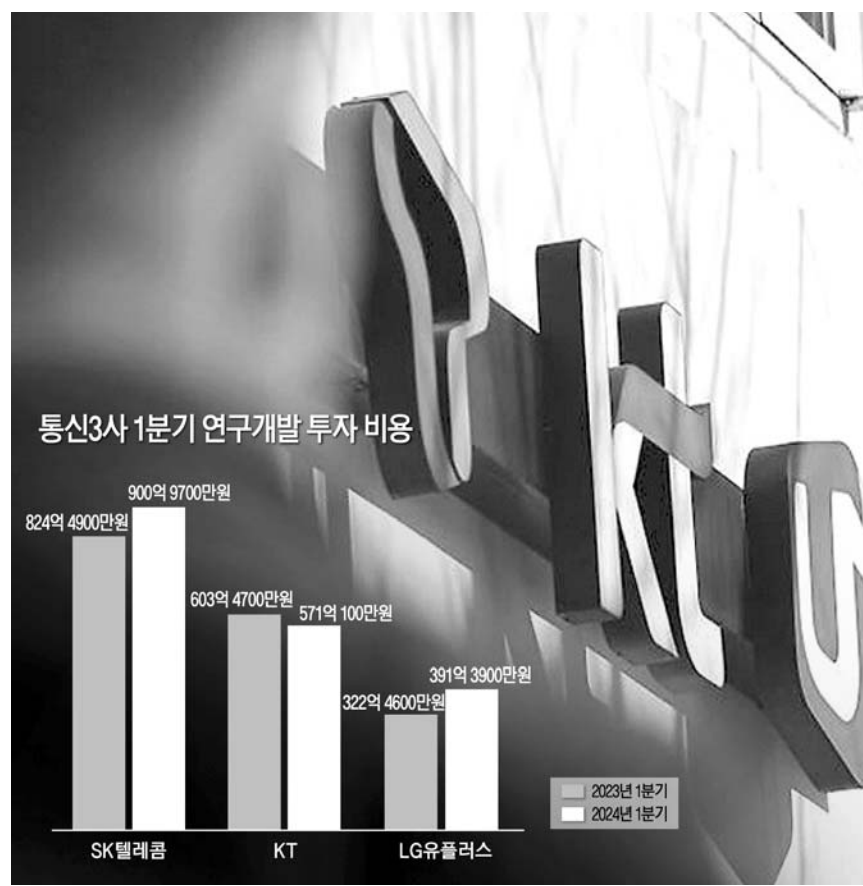
증권가 전망치(1조2555억원)는 가까

스로 지켜냈지만, 본업인 유·무선사업 성장이 침체되면서 비통신 영역에서의 사업 성과가 이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비통신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연구개발(R&D) 비용을 살펴본 결과 LG유플러스(391억3900만원)는 전년 동기 대비 21.38%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09%로 약 1.08%p 올랐다.

투자 규모는 SKT가 900억9700만원으로 같은 기간 9.28% 확대됐다. KT는 571억100만원으로 5.38% 감소했다.

각 사의 R&D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SKT는 AI 관련 사업에 집중돼 있었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R&D 사업 31개 중 총 22개가 AI 사업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그래픽·김베티 기자 seuk22@ekn.kr

여기에는 △영상진단 의료 AI △영상 및 정신질환 예측·진단·관리를 위한 AI △보이스피싱·스팸 탐지 AI 기능 고도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 절감 솔루션 △AI 기반 엔드 투엔드 로봇 제어 솔루션 개발 등이 포함됐다. SKT가 지난해 궁극 목표로 제시한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사 중 비통신 사업 비중이 가장 큰 KT는 AI 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도심형공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 투자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첫 5G 이동통신 단말기 △상용화 △AI로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탐지 △올레TV 등에 AI 관계 시스템 구축 △기가지니 테이블 TV2 단말 출시 △제주도에 스마트디지털 도로 구축 등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향상과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특히 △U+ 다이렉트 크루즈 △모바일매니저 신규 기능 △새 멤버십 쿠폰 시스템 △U+tv모아 △우리가 깨닫지않는 매장 디지털 전환(DX) 상

품 △현대기아차 웹(Web) OS 모바일TV를 선보였다. 로봇플랫폼 배송로봇 출시, 한전 원격검침계량기(AMI) 고압 자체기 모델 개발을 통해 서비스 영역도 확대했다.

통신 3사는 올해 2분기부터 AI에 힘을 더 줄 전망이다. SKT는 다음달 중 통신 특화 초거대 AI 언어모델 ‘글로벌 벨로 LLM’, LG유플러스는 ‘익시(ixi)’를 출시한다. KT도 지난해 출시한 ‘민음’을 앞세워 AI 컨택센터(AICC)·사물인터넷(IoT)·스마트모빌리티·스마트공간·에너지 등 5대 성장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LG유플러스가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경쟁사에 비해 사업 진출이 한발 늦은 만큼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AI 모델 개발과 반도체 확보에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다”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수요가 필요하고 일반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AI 서비스가 등장해야 생태계가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 ‘저출생 종합 플랜’ 6월 발표 유력... 관련주 어디?

정부의 ‘저출생 종합 플랜’이 이르면 6월 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저출생 관련주들도 다시 곱씹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수혜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련이 크게 없는 일부 테마 종목들도 난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출산장려정책 관련주인 남양유업이 5.30% 올랐고, 매일유업(4.80%), 곰비(2.95%), 제로투세븐(2.02%), 아가방컴퍼니(1.72%), 웅진씽크빅(1.40%) 등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공개될 것인 기대감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6월 전체 회의를 열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초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회부’ 출범과 관련해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을 저출산 대책 본격 시행 가능성 아가방·곰비 등 관련주 수혜 기대 테마주 난립 예상...투자자 요주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나증권은 올해 초 저출생 관련주로 △아가방컴퍼니 △곰비 △깨끗한나라 △유엔엘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가방컴퍼니는 유아용 옷과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출산정책 수혜주로 꼽힌다. 제로투세븐 역시 유아용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 중이다. 또 곰비는 영유아용 가구와 매트, 스킨케어 등, 깨끗한나라는 물티슈와 화장지 등을 생산 중이며, 메디앙스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토탈 라이프케어 전문기업임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엘은 유아 대상 스마트링업 업체로 교육 기대감에 따른 수혜가, 캐리소프트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기업으로 수혜주에 이름을 올렸다.

임승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

저출산 관련주 17일 주가 등락률

종목명	등락률
남양유업	5.30%
매일유업	4.80%
곰비	2.95%
제로투세븐	2.02%
아가방컴퍼니	1.72%
웅진씽크빅	1.40%
깨끗한나라	1.29%

자료·한국거래소

안으로 15조4000억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늘리고, 유보통합 등 저출산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저출산 관련주의 수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저출산 공약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양당은 △무상교육 확대 및 대학등록금 면제 혜택 △대출 요건 완화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 및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1억원 대출 후 자녀 출산에 따른 경감 혜택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공급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기준을 폐지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가 세계 최저수준을 재차 경신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다만 일종의 정책 테마주 형태로 다수의 종목들이 난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수익은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류에 편승해 저출산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일부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관련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며 “사업과 관련없이 테마에 묶여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국내 최대 크기의 114형 마이크로 LED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지난 3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2024년형 LG 올레드 TV 제품 이미지.

삼성·LG전자 ‘TV 라인업 다변화’ 속도

삼성 ‘국내 최대’ 114형 마이크로 LED 출시...LG OLED 영향력 확대
TCL 등 중기업 견제 차원... 삼성, 1분기 글로벌 TV 출하량 1위 지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눈길을 잡는 초대형 프리미엄 TV를 선보이는가 하면 보급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TCL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최대 크기인 114형 마이크로 LED를 공개하고 ‘초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가 확산하자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기존 89·101형에 이어 114형으로 확대한 것이다. 출고가는 1억8000만원이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를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게 특징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물임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미국에서 보급형 OLED TV를 선보이는 등 현지 판매 라인업도 확대했다. OLED TV가 액정표시장치(LCD) 모델 대비 가격대가 높은 만큼 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LG전자의 공세도 강력하다. LG는 지난 3월 2024년형 LG 올레드 TV와 LG QNED TV를 국내 출시했다. LG전자는 2024년형 TV를 업계 최대 라인업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화질의 올레드 예보(시리즈명: M4·G4·C4) △스틸밴드 올레드 TV(B4) △라이프스타일 올레드 TV 포제와 플렉스 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서유럽·북유럽 등지에서 대형 유통거래선을 넓히고, 내년 초 유럽에 판매법인 설립도 예고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LG전자는 QNED TV 제품군도 늘렸다. 초대형·프리미엄 LCD TV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98형 제품을 더해 중소형부터 초대형에 이르는 QNED TV 풀 라인업(43·50·55·65·75·86·98형)을 운영할 방침이다.

양사의 TV 경쟁은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하다. 신제품의 특징으로 ‘강력한 새 프로세서 탑재’를 통한

AI 성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네오(Neo) QLED TV와 OLED TV 신제품을 소개하며 ‘AI TV 시대’를 선언했다. 실제 네오 QLED 8K TV에는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3세대 AI 8K 프로세서가 들어갔다.

LG전자는 신제품 중 LG 올레드 예보(M4·G4) 시리즈에 알파11 프로세서를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 알파9 대비 4배 강력해진 AI 성능을 갖췄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그래픽 성능과 프로세서 속도는 각각 70%, 30% 향상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시장에서 기술·라인업 경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저가 공세’를 벌이기에 중국 업체들이 최근 들어 기술력을 끌어올리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TCL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163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전면에 내세웠다. TCL은 국내 주요 거점에서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운영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글로벌 TV 시장은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대형화 트렌드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 16%로 1위를 유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1위다. LG전자는 9%는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 하이센스(10%)와 TCL(10%)에 이어 4위를 달렸다.

화면 크기별로 보면 70인치 이상 대형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급성장했다. 삼성전자는 70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에서 2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고사양 프리미엄 TV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15% 컸다. 특히 미니 LED LCD TV 출하량이 24%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라면업계, 지각변동 조짐...‘K-라면’에 달렸다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라면 빅3’ 1분기 매출 일제히 상승
영업이익 농심 3.7% 후퇴, 오뚜기 12%·삼양 235% 증가
K-라면 수출증가·고환율 영향 결과...해외실적 확대 주력

올해 1분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 명암이 엇갈리면서 시장 지각변동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총액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며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라면 제조사 모두 입지 굳히기 및 판매 뒤집기를 목표로 해외매출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라면 빅3’ 모두 1분기 매출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농심 8725억원, 오뚜기 88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나란히 1.4%,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은 무려 57% 늘어난 매출 3857억원으로 기록하며 빅3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갈린 지점은 ‘수익성’이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내려앉은 반면, 오뚜기는 11.9% 끌어올린 732억원을 달성했다. 삼양식품도 영업이익 801억원으로 무려 235%나 뛰어올랐다.

또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농심·삼양식품의 실적이 엇갈린 것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라면 사업 비중에서 농심은 매출의 80% 가량을, 삼양식품은 9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두 라면업체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수익성에서 명암이 갈렸다. 수출 비중 크기와 고환율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관련기사 10면> 1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동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매대

기 대비 83% 오른 28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5%에 이른다. 반면에 농심은 6.6% 감소한 24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8.3%에 그쳤다.

미국·중국 등 현지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농심과 달리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직수출해 비교적 환차익을 크게 남겼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깜짝 실적과 함께 삼양식품 주가가 농심을 제치는 이변도 발생해 더더욱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통상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시가총액은 기업의 미

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삼양식품이 이달 10일 주식 시가총액 2조4520억원으로 농심(2조4483억원)을 추월해 라면업계를 대표하는 라면주에 올랐다. 삼양식품이 농심을 제친 것은 약 30년 만이다. 1995년 한국거래소가 개별종목 시가총액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삼양식품은 전날 공개된 실적 영향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 오른 4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시총도 3조 3635억까지 올라 최초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농심은 4.7% 줄어든 39만9000원으로, 시총도 2조4270억원 선까지 떨어졌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면 빅3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3사 모두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다. 농심은 오는 7월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오는 6월 프랑스 내 판매망 확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서유럽·북유럽 등지에서 대형 유통거래선을 넓히고, 내년 초 유럽에 판매법인 설립도 반영하는 만큼 시가총액은 기업의 미

▶기사 1면에서 계속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 때는 세마

을금과 묶음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

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 기사가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끼리) 대령령 령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K패스-경기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더 더



The 경기패스 혜택

20~30대	40대 이상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30% 환급	20% 환급	53% 환급	연 최대 24만원

신청방법
K패스 (www.korea-pass.kr)
경기도홈페이지 (www.gg.go.kr)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K-패스에 경기도민이 가입하면  The 경기패스가 됩니다

신청은 **더경기패스**  를 검색하세요.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놓고 '전운 고조'



여야가 특검 추진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 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야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국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의 10번째 거부권 행사 주목...여야 긴장 민주 등 野 6당 장외투쟁 예고...與 "공수처 수사 우선" 고수 재의결에 與서 이탈표 20표 이상 필요... '표 단속·확보' 경쟁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

180석이다. 즉, 재의결엔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되는 상황에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특검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 내년 예산 '재량지출 총량' 묶는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총량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이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원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도 나온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윤수현 기자

한국, 부채 증가 폭 비기축통화국 중 2위

韓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10년간 37.7→55.2% 높아져...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관련기사 13면>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면이 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p) 뛰었다. 향후에도 한국의 정부부채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與 총선백서 논쟁에 한동훈 '전대 출마론' 급부상

'총선 책임론' 출마 명분 될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의 전당대회 출마론이 '총선 백서' 논쟁과 맞물리며 오히려 급부상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서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서는 6월 중 발간이 목표라고 알려졌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6월말 7월초'로 거론되는 만큼 전대 이전에 백서가 나오

는 일정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의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깝게 지내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총선 백서 논쟁이 한 전 위원장을 당내 이슈의 중심에 세우면서 자연스레 출마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전날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현 기자

RAYCOOK

퍼터는 레이쿱이 좋습니다

숏퍼팅은 더 좋습니다

S·B·T사 퍼터와 레이쿱퍼터의 공의 스킵드(미끌림) 거리 비교

※ 테스트 | 스포츠산업기술센터 (KGOS)

“에너지기상 분야 정착되도록 노력...산업 이익 무궁무진할 것”

INTERVIEW 유희동 기상청장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너지기상에서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재임 2년을 한달 앞두고 지난 1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날씨 예보와 특보 등 기상청 본연의 업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밝혔다. <편집자주>

유 청장이 기상청 과업으로 제시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기상과 기상산업 육성이다.

기상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시하고 기상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규제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 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선, 기온변동을 두고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라 설명했다.

다음은 유희동 기상청장과 일문일답.

- 재임한 지 2년이 돼간다. 그동안 소회가 궁금하다.

▲국민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세계 선도 기상청으로의 발돋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무 발굴 등 기상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렀다.

그러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를 마주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겁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상청의 신뢰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저를 비롯한 기상청 직원들이 대국민 서비스 모두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 노력이라는 정도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집중호우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청이 직접 ‘호우·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위험정보를 알리는 시범서비스를 운영했다.

지진속보와 지진조기경보 발표의 신속화도 이뤘다. 작년 1월 강화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기상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고 10초 벽을 깨고 11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때는 5초까지 단축한 바 있다.

민간기업과 함께 도로위험기상 서비스도 구축했다. 도로살얼음,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부터 제공하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PI 플랫폼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의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 기상청은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 기상청이 언론, 대중과 소통하는 비결이 있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예보분석관이 직접 설명하는 주 1회 정례브리핑(매주 목요일) 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예보에 대한 근거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시에는 실시간 재난방송 출연, 인터뷰, 실시간 상세기상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태풍 카눈의 경우 8일 동안 매일 수시브리핑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기상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소통 장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수도권, 광주, 전남에서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건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확대 시범운영 지역을 당초 전남권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경북권까지 1개 권역을 더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단순히 어떤 기준값에 도달했을 때 기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보관들이 10여 분 남짓한 짧은 순간에 비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및 발달 경향 등을 빠르게 분석해 유·면·동 단위로 정교하게 발송한다.

문제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기상 상황에서는 기존의 예보인력 전부 극한까지 가동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증원 없이는 이 제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탓에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호우 긴급재난 문자 운영인력 확보를 긴밀히 논의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전국 확대 일정도 조율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가 생각이다.

- 지진재난 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발송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측 불가능한 지진 발생의 경우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국민에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라 발생 위치 중심으로 반경 50km, 80km 내에 위치한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하지만 기상청이 보내는 재난 문자가 실제 지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도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단위로 보내지는 재난 문자를 시·군·구 단위로 더욱 세분화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진재난 문자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다.

발송 대상 지역도 특정 진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재난 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면.

▲기상청은 운전자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상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과 안개 등으로 인한 가시거리 위험 정도를 관상·주의·위험의 3단계 수준으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작년부터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화물차 전용 앱인 맵퍼스(아들란)에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기상산업으로 글로벌 ESG 공시규제 대응 지원할 것
기상예보·특보 살아있는 생물... 최신 기상정보 습득해 주길 당부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후예측정보 신속 제공할 것
기온 강수량 변동 커진 것 기후변화 특징...작년 기후변화 실감한 해

he is... 유희동 기상청장



△1963년 서울 출생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졸업·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이학석사·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이학박사 △2007~2011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상황과장·수치모델개발과장 △2011~2013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2014~2015년 기상청 기후과학과장 △2015~2017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2017~2018년 기상청 관측기반과장·예보국장 △2019~2020년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2021~2022년 기상청 차장 △2022년 기상청장

망을 구축하고,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노선을 점차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는 가뭄,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기후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지.

▲지난해는 가뭄도 길고 비도 유난히 많이 와, 어느 때 보다 기후변화를 실감했던 해였다.

특히 전남지역은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단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긴 가뭄이 끝나기가 무섭게 5월부터 호우가 시작돼 장마철에는 극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과거에 비해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비 오는 날은 적어진 반면,

강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는 집중호우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짧은 기간 내 롤러코스터와 같은 큰 기온 변동을 보이는 것도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다. 특히, 지난 한 해만 해도 서달이나 기온 변동이 역대 가장 컸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동남아시아에서는 체감온도 5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반대편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 6개월 기상가뭄, 기후예측 전망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다만 몇 퍼센트 확률로 평년보다 덥다 이런 표현은 모호해 보인다. 어떻게 전망 서비스를 바라보면 좋겠는가.

▲퍼센트 확률로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기상청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이다.

단기예보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예측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 기후상태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용적인 방안이다.

기온의 경우 평년보다 높을 비습할, 낮을 확률을 모두 제공한다. 확률이 높은 기온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목적에 따라 낮을 확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작년부터는 ‘3개월 전망 해설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술술 읽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의 모식도와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사용자가 기후예측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고 개선하겠다.

- 올해도 지난해처럼 다사다난한 날씨가 보이겠는가.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23.4~24.0°C)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오는 23일 상세한 여름철 전망(3개월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니 변경되는 여름철 전망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 올해 여름부터 극단적으로 강한 호우

와 같은 위험기상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시, 발생빈도와 극값순위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이는 역대 3위,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입니다”라는 정보를 정례·수시브리핑, 기상정보문에 발표하는 것이다.

위험기상 발생빈도와 극값 정보를 전달하여 방재 대응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성 높은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

- 올해 기상산업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산업 업계가 아직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상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현재 기상산업의 규모는 2017년 4077억 원에서 2022년 9785억 원으로 연평균 19%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도 조사 결과, 금년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결코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지역 구축, 기상예측 융합정보 개발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ESG공시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기상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산업계의 역할 및 지원 방향,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상기업이 국내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를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마련 및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 지난달 30일에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기본 소감이 궁금하다.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상청이 365일 신속하고 정확한 일기예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매일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전력거래소도 일사관과 바람 등 기상을 연료로 매일 실시간 전력 수요예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급변하는 날씨가 잦아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발전량 예측의 핵심인 기상예측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올해부터 기상청이 새로 개발한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의 최우선적 수요자로 전력거래소를 고려하고, 미래 기상과 에너지 분야에 동반성장을 위해 전력거래소와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물과 연관된 기상분야가 ‘수문기상’인 것과 같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체 전력의 100%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정보에 따라 에너지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상세하고 정확한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보는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늘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감안해 기상재난으로부터 대응은 보다 보수적으로 심화할 정도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상정보, 특히 예보와 특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갱신된 예보와 특보가 생산되므로 최신의 기상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상청은 자연재난, 기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는 날을 만들어 국민들이 날씨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분기 '매출 0원' 셀리버리... '상폐' 기로

바이오 신약 개발 사실상 실패
작년 3월부터 1년째 거래정지
내달 4일까지 상폐 심의·의결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가 1분기 매출 0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부진한 실적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셀리버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셀리버리 경영진의 말만 믿고 기다린 개인투자자들은 허탈해지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셀리버리에 대해 1분기 매출 미발생을 이유로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주된 영업 부문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기록하는 등 영업이 정지된 경우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가 발생하고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셀리버리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0원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에 현금성자산도 1분기 초 11억4852만원에서 분기 말 1억1542만원으로 10억원 가량 감소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사 직원 수도 지난 2022년 말 100명에서 올 1분기 말 기준 총 9명으로 줄었다.

셀리버리의 매출이 전무한 원인은 회사의 주력 사업인 바이오 신약 개발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 신약 개발 원료를 약속하며 지난 2018년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자사 플랫폼 기술인 "TSDT(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을 기반으로 5종의 바이오 신약(파킨슨병 치료제, 웨징암 및 고형암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고도비만 및 2형 당뇨병 치료제, 급성 간염 패혈증 치료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까지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셀리버리 주가는 10만원까지 올라 한때 시가총액이 3조원으로 불어나기도 했다. 성장세에 힘입어 물티슈 제조업체인 리빙엔헬스를 인수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리빙엔헬스에 전환사채 등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사세가 기울었고 적자 폭이 확대됐다.

셀리버리 거래정지 일시

연도	날짜	내용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 성장성 특례 상장
	3월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및 거래정지
2023년	4월	상장폐지 이행신청에 따른 개선기간 부여
	3월	2년 연속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4년	5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보고서 미제출 분기 매출액 미달로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 발생
	6월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6월4일 이내)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셀리버리는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261억원, 자본금은 183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242.6%에 달했다. 자본잠식은 자본총계보다 자본금이 적어진 경우를 말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영업손실도 5년째 이어졌다. 셀리버리의 별도 기준 영업손실은 △2019년 145억원 △2020년 176억원 △2021년 276억원 △2022년 386억원 △2023년 118억원 등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 2022년과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7억7800만원이 더 많다"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셀리버리는 지난달과 이달에 거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의견 '적정'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막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에 해당하는 다음달 4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가 통지된다.

김기영 기자 giryeong@ekn.kr

파맙신, 타이어뱅크 기대했지만 거래재개 깜깜

매출 4310만원...상폐 사유 추가
연 매출도 1억 미만...특례도 끝나
지배구조 회정...임상도 결국 취하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한 통로가 되리라 기대했던 파맙신의 거래재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푼 돈'으로 상장사를 인수하려던 타이어뱅크는 이미 한발 늦었던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맙신은 지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영업수입)이 4310만원에 불과해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주된 영업이 정지되면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를 받는다. 그리고 동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파맙신과 같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는 상장 뒤 5년간 적용하지 않지만 2018년 11월 상장한 파맙신은 특례 기간이 끝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사실 파맙신은 상장 이후 연간 매출도 1억원을 넘지 못한 곳이다. 특례 제도를 이용해 금융투자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했지만 자산 총계가 해마다 줄어드는 등 '빨리 돈' 신세였다.

실제 파맙신은 특히 특례 기간 종료로 앞두고 연이어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던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의결한 3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가 같은 해 12월 철회될 일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최승환 한창 전 대표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금 투입을 철회한 후 결국 유증

이 취소됐다. 파맙신은 이 일로 4.5점의 벌점을 받아 총 15.5점의 벌점을 쌓아 상장정지처분 결정사유 대상이 되면서 현재까지도 거래가 정지 중이다.

심지어 최 대표와 회사의 악연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 대표가 지난 4월 파맙신을 상대로 10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당시 최대주주였던 유진산 대표가 진행하던 지분 양수도 계약도 파행을 겪었다. 유 대표가 계약금만 받고 지분을 유엔파트너스에 넘겼는데 이후 추가 하락으로 해당 지분이 전부 반대매매 당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회사는 최대주주가 없는 상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곳이 타이어뱅크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맙신이 진행하는 5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증에 참여해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투자자들은 타이어뱅크의 투자 규모는 작지만 우회상장 가능성을 기대했다. 타이어뱅크는 자산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4839억원, 영업이익은 56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투자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타이어뱅크 입장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증이 취소된 뒤 50억원 규모의 유증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규모 유증 취소 때문에 타이어뱅크의 투자 집행 이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유치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파맙신 주주들은 300억원 유증을 취소 할게 아니라 타이어뱅크를 대상으로 변경해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가상자산 거래소, 호실적 뒤 양극화 그림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올 1분기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다른 거래소들은 미미한 점유율로 여전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코인마켓처럼 원화마켓에서도 폐업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119억원) 대비 58.39%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도 5311억원으로 74.19% 늘었다. 순이익(2674억원)은 18%가량 감소했는데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 가능한 평가 이익의 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점유율 2위 빗썸도 흑표를 터트렸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83% 증가한 수치다. 매출(507억원)과 순이익(919억원) 역시 각각 172%, 126% 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까지 '크립토 윈터'를 겪으며 업비트·빗썸도 실적 악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톱2' 1분기 호실적 신고
코인원·코빗·고팍스, 3곳 거래소 합쳐 '2% 미만' 부진
점유율 확보 실패 땐 적자 극복 어려워... '줄폐업' 우려

화를 겪었지만, 4분기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랠리가 투심을 되살리며 거래소 실적도 개선되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은 올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장, 반감기 등 호재를 맞으며 시세가 55% 이상 급등했다.

특히 빗썸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월초까지 수수료 무료 정책을 진행했고, 이후로도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정책을 고수했음에도 상당한 실적 성장을 이뤘다. 기존 10% 수준에 불과하던 점유율을 20%대까지 키워낸 데 따른 성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업비트·빗썸을 제외한 거래소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코빗·고팍스의 경우 분기 실적 공시를 내지 않아 정확한 1분기 실적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유의미

한 실적을 내지 못했으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17일 오후 기준 업비트의 거래량 점유율은 75.58%, 빗썸은 22.49%를 기록했다. 그 뒤는 코인원(1.57%), 코빗(0.27%), 고팍스(0.09%) 순이었다. 세 거래소의 점유율이 합쳐서 2%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코빗과 고팍스는 빗썸처럼 수 개월간 무료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점유율 성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용자가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에 고객 유출 현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는 작년에도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할 만큼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도 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인원으로 예를 들면 이날 24시간 거래금액(3126만8289달러)에 고정 수수료 0.2%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이 어찌다...부도 확률 16%

공무원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장의 강자 '에듀윌'이 위기다. 2022년 말부터 빠진 자본잠식을 지난해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결과 신용등급이 재차 하락했다. 게다가 부동산 PF 위기, 공무원 인기 감소 등 에듀윌을 둘러싼 외부 시장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19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에듀윌의 신용등급을 'BB-/부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 통상적으로 AA등급 이상의 회사채는 우량 채권으로 분류하고, BB등급 이하부터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투기등급의 경우, 누적부도율이 10%(광의)를 웃돌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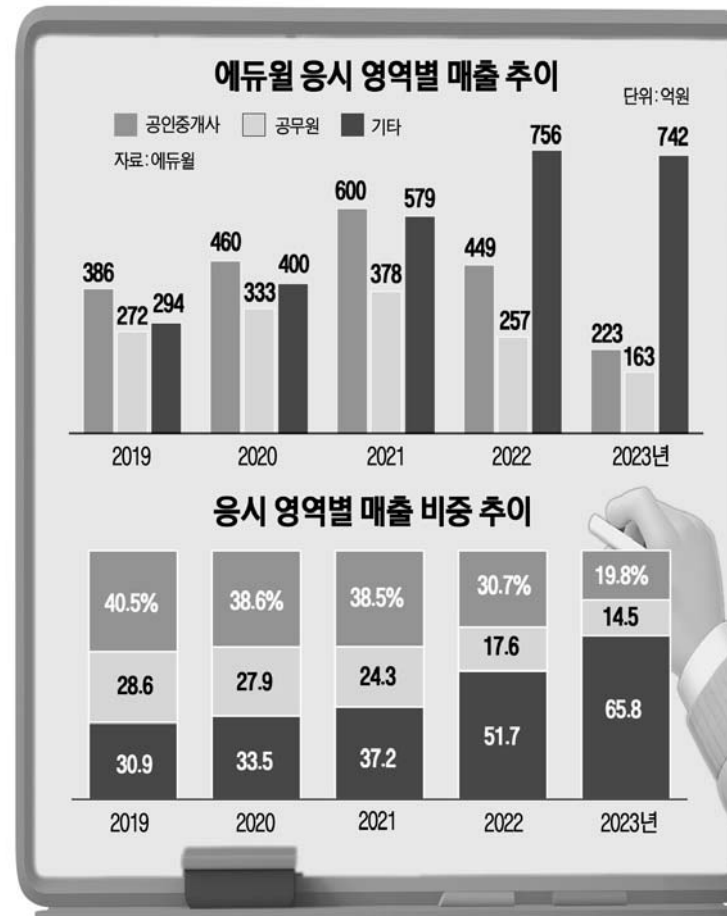
한국기업평가는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일 때 B등급을 부여한다. B등급의 경우,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이 공식적으로 14.36%, 광의적으로는 16.32%에 이른다.

게다가 신용등급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에듀윌의 별도 기준 매출은 1128억원으로 전년 1462억원과 비교해 334억원(22.8%) 감소했다. 그리고 1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지난해 186억원 영업손실에 이어 2년째 100억원 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에듀윌 총자산이 1087억원임을 고려할 때 100억원 대 적자는 에듀윌에 큰 부담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 행진은 완전 자본잠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62.8%에 이르며 차입 부담도 상당하다. 통상적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0%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50% 이상이면 에듀윌의 경우, 2배를 상회한다.

완전 자본잠식 2년째 이어져...자산 재평가로도 '역부족'
공무원·공인중개사 인기 '시들'...시장 규모 감소 '직격탄'



그래픽=오찬영 기자 chanyoh@ekn.kr

그렇다고 에듀윌이 마냥 방관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유형자산의 자산 재평가를 실시, 89억원의 재평가이익을 계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적자 폭이 커져 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에듀윌의 대주주 일가는 지난 2월 70억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했다. 자산 재평가와 같은 재무기

술 활용을 넘어서 오너의 사재출연까지 진행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학원 폐원 및 아이팀 철수 등 손익 개선 노력 △소주구조 합리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도 회복하려 한다.

다만, 배성진 한기평 연구원은 "현물출자가 이뤄졌으나 영업실적의 완전한

를 적용, 1년치 매출을 단순 계산할 경우 약 308억원이 예상된다. 이는 작년 매출액(225억원)보다 큰 수치지만 영업비용(469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여전히 영업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원화마켓 거래소보다 규모가 작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현재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후오비코리아, 코인빗, 텐앤텐, 프로비트 등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문을 닫았고, 한빛코도 지난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 지다, 비블록 등에서는 꾸준히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원화마켓 거래소 중에서도 폐업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랜 영업 적자를 겪은 코빗의 경우 올해 초 주요 주주인 SK스퀘어·NX의 지분 매각설이 돌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각 거래소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점유율을 올릴 만한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이복현 금감원장,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 방안 추진

'기술적 미비해도 시장과 소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던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인엔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권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나 소요되고 법률 상으로도 쟁점이 있으나,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해선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취약층과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는데 은행 동참을 촉구해왔지만, 이는 은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차원 내에서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캠페인에 대해선 "본인(주주)-대리인(경영진)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는 가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는 행동주의 활동이 있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생각"

이라며 "다만, 행동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현재의 특정 행동주의 세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거연계증권(ELS) 판매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위험자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대해서는 "1년 반 이상 손실 인식이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 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든, 매각하던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국이 보유 자산을 할당에 팔라고 강요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ENERGY INDEX (16일)

원유 (달러/배럴)	
브렌트	+0.52 83.27
두바이	-0.41 82.67
광물	
금 (달러/온스)	-9.13 2376.86
은 (센트/온스)	+0.15 29.88
동 (센트/파운드)	-4.75 487.70
납 (달러/톤)	+24.10 2241.08
아연 (달러/톤)	-12.76 2914.98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국표원 "직류배전망 기술 선도"
IEC, '중전압직류 배전망' 채택

우리나라가 전세계 미래 직류배전망 기술을 선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 이하 국표원)은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IEC는 표준백서를 통해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주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도 IEC의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2029년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IEC는 매년 1개의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데 올해는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와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채택됐다. 이는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얻어낸 결과이며,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성식 기자 jis@ekn.kr

진수남 사장 직무대행 체제
가스기술공, 비상경영 돌입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단기성과관리 고도화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청렴·윤리 강화 및 공정기강 확립 등 '비상경영 5대 중점 관리과제'를 확정·시행하는 등 업무 공백 없는 지속경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진수남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 노동조합, 정부 등 내외부 고객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직원들은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 사장 직무대행은 안전점검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청렴 및 감질 근절 활동 추진 등을 특별 지시했다. 공사는 대국민 안전과 국가에너지산업 관점에서 공사 역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숙 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책 선도, 관련 산업 새 도약 계기”

INTERVIEW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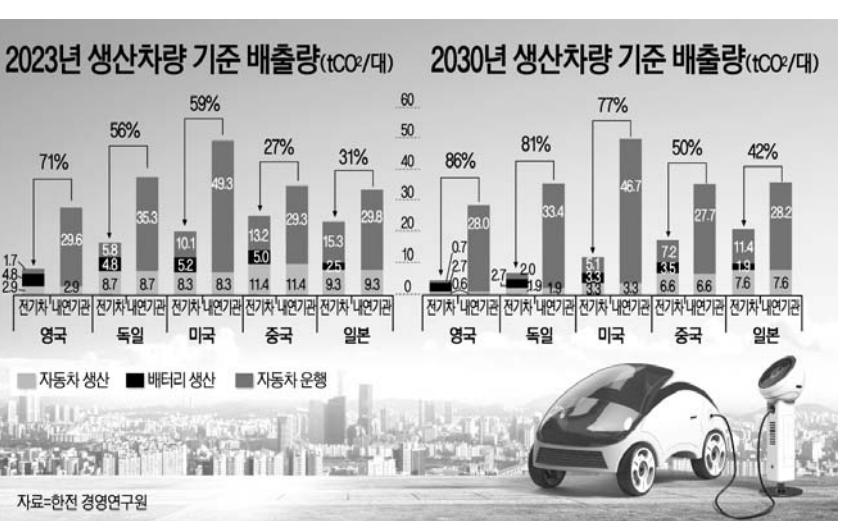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 다루지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 아직 기대만큼 성과는 없지만 원가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오염 대응 5차회의 11월 25~26일 1일 부산 개최 총괄
오염 관리 원료부터, 폐기부터 의견 다양...조용 쉽지 않아
생산자재활용제도 등 한국 플라스틱 규제, 국제논의 이상 수준
국내 정유·화학산업, 플라스틱 문제 새로운 도약 기회로 봐야
환경부처 위상·재정·인력·권한 빈약...선진국처럼 전폭 지원

만나 INC 4차 회의 분위기와 쟁점 사항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실장은 INC 4차 회의가 쉽게 흘러 가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에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 다루지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다. 그렇다 보니 어떤 국가는 플라스틱 원료 부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국가는 오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 부분만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원론적 부분에서는 정이 반복된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 협상이라는 게 별 진전이 없다가 막판에 확 진도가 나가기도 한다. 아직 기대만큼 성과는 없지만 원가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회의 막판에는 페루와 르완다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처럼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때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몇 퍼센트 감축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논의 사항 중 가장 급진적인 편에 속한다. 이 실장은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진 않았다. “협약이라는 게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 한다. 이란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플라스틱 폐기 부분만 관리하면 된다고 보수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급진적인 제안이 성사되긴 어렵다고 본다. 5차 회의가 끝난 후 실제 협약을 작성하는 회의국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비한 제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유화학 강국이다.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다. 그런 나라에서 플라스틱을 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선도하다가 자칫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 실장은 그럴 염려는 없으며, 오히려 국내 관련 산업이 플라스틱 문제를 새 도약 계기가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재 제도, 재생원료 사용,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제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국제 논의 이상 수준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량 감축제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바이오나사, 재활용, 품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의 부분에서 국내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실장은 국내 정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발단에 환경부가 있다고 얘기했다. “약 30년 전, 환경부가 기름 품질을 대폭 높였다. 그 때 정유업계의 반발이 컸다. 당시 환경부장관이 연구자가 돼 정유업계 사장들과 선진국을 돌며 학습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름 품질이 세계 최고가 되면서 정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생존이 힘들다.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열리는 IND 5차 회의의 성공 여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협약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상황이다. “5차 회의에서 협약 최종안이 나오지 못하면 차라리 회의를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된다. 다행히 4차 회의와 5차 회의의 중간에 회기간 회의가 열리게 됐다. 과학전문가그룹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선진국들의 출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재정 메카니즘도 열리게 됐다. 우리는 양자든, 다자든 여러 나라들을 계속 만나면서 5차 회의에서 반드시 협약 최종안을 만들자고 많이 요청하고 있다.”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량 내연차보다 최대 71% ↓



한전 경영연구원 리포트
5개국 2023년 생산 차량 기준
英 71%·美 59%·獨 56% 적어
2030년엔 배출량 더 감소 전망

각국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량이 늘면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차보다 적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17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Bloomberg)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전기차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의 2023년 생산 차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적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한전 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Bloomberg)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전기차 전주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의 2023년 생산 차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적고,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연평균 운전거리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많이 전력의 탈탄소화로 인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생산배출량과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운행배출량(주행거리 25만km 기준)이 있다. 전기차의 생산배출량은 내연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행배출량이 적어 전주기 기준으로는 5개국 모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적었다. 특히 2030년 생산 차량을 가정하면, 전기차의 전주기 배출량은 내연차보다 영국 86%, 독일 81%, 미국 77%, 중국 50%, 일본 42%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그만큼 각국의 무탄소 발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2040년 미국의 무탄소 발전량 비중은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량 비중은 작년 24%에서 1%로 줄고,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작년 18%에서 57%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전기차의 운행거리당 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독일은 2040년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23%, 풍력은 63%가 되고, 석탄발



송민호 본부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한국가스기술공사 및 인하대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인하대,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연구

에너지안보 확보전략 등 협력
세부기술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모니터링 및 누출위험도 분석기술 △다상 지하유체 거동 분석기술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평가 등이 있다. 그 외 △가스폭발 영향 해석 기술 △가스 유동 해석 기술 △지하 모니터링 기술 △지하 공간 안정성 평가 기술 △공정/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국제 인증 연계 △신개념 오픈지수 탐사·개발·생산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 상태의 수소를 확보하거나 암모니아의 형태로 수소를 활용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 이후 국내 액화 수소 또는 암모니아 수입터미널 구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장 등의 외부충격에도 수소가 폭발하지 않는 완전방호식 암모니아 저장탱크에 대한 설계기술에 대한 개발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 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은 "액화수소와 암모니아의 형태로 수소를 사용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이 국가 탄소중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ons@ekn.kr

카카오 정신아 대표 “매년 주식 2억원 매입”

역대 대표 중 첫 주주 서한 발송...글로벌·AI 확장 등 성장 방향성 공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책임 경영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재직 기간 중 매년 2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고, 인공지능(AI)과 글로벌을 중심으로 사업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주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카카오 대표가 주주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매입할 예정”이라며 “매입한 카카오 주식은 대표 재직기간에 매도하지 않고 주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을 보낸 지난 16일 실제로 첫 장내 매수를 실행했다. 향후 매년 2월과 8월 실적발표 직후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 수익률 기반 보수 체계도 설정했다.

정 대표는 “보수의 약 60%인 상여는 장·단기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중 단기성과급은 당해 사업의 주주수익률, 장기성과급은 3개년간의 주주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성장 방향성도 공유했다.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의 트랙픽을 토대로 광고사업 및 선물하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본사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A



정신아 카카오 대표.

I를 중심으로 성장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AI의 경우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수익모델(BM)이 명확하지 않은 대규모 모델 연구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통한 전문가 상담, 고객 관리,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이미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AI가 사용자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전기 “전장용 MLCC 날개 달고 매출 1조 달성”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경쟁력을 토대로 실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MLCC 시장은 현재 131억달러 수준이고, 2028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은 IT·산업용 등을 모두 합해 8% 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김위현 삼성전기 MLCC제품개발4그룹장(상무)은 “만약 MLCC가 없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전원 불량이 발생해 전원이 꺼지거나 자동차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해줬다가 AP·IC 등 능동 부품이 필요로 하는 만큼 회로에 일정량의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해 반도체가 원활히 작동하게 만드는 ‘댄’ 역할을 한다. 전자 제품 내 신호 간섭(노이즈)도 제거해준다.

삼성전기는 특히 차량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 전장용 MLCC는 4조원 규모였던 관련 시장이 연 평균 12% 커져 2028년 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품 단가도 IT용 제품 대비 3배에 달한다.

올해 전장 시장 성장률은 16.6% 안팎으로 예상된다. 꾸준히 성장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도 내연기관 대비 MLCC 소요원수가 최대 2배 수준이어서 전장용 MLCC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장용 MLCC 매출 1

조원 시장을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MLCC의 사이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0.4mm*0.2mm에서 5.7mm*5.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신 스마트폰에는 MLCC가 1000여개, 전기차에는 1만8000~2만개 가량 탑재된다.

전장용은 IT 제품에 들어가는 것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MLCC는 150도 이상·영하 55도, 휨 강도 등 충격이 전달되는 상황, 습도 85% 등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 목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테스트 환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온·고전압에 견딜 수 있는 재료 개발과 진동과 내습 특성을 강화하는 미세 구조 설계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MLCC 경쟁력은 작게 만들어 저장 가능한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유전체 등 미립 소재 기술과 간섭 없이 균일하게 층을 쌓을 수 있는 제조 기술도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내부에 유전체와 전극을 600층까지 쌓아 고용량 제품 생



김위현 삼성전기 MLCC제품개발4그룹장(상무)

산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라믹과 니켈을 번갈아 쌓아 만드는 MLCC 공정은 총 1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유전체 파우더와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해 슬러리를 만들어 필름 위에 얇게 코팅하고, 성형된 시트에 내부 전극(니켈)을 인쇄하고 원하는 층수만큼 쌓는다. 이어 압착 과정을 통해 밀도를 높여주고 개별 칩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거듭난다.

외관상 파손이 없어 보여도 내부에 금이 가진 양은 전기적 특성 등 품질과 외관을 검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제 기능을 수

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상무는 “ADAS 보급률도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레벨 2 이상 적용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등 자율 주행 레벨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전장용 MLCC 채용원수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등 시장의 고성장 전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그는 “휴머노이드나 항공·우주(에어로스페이스) 분야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고객사명을 밝힐 수 없지만 논의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CJ대한통운, 美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

냉장·냉동 제품 특화로 내년 3분기 운영...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CJ대한통운이 미국 뉴저지 지역에 냉장·냉동 제품 물류에 특화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첨단 물류기술을 앞세워 북미 물류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 센터는 2만7034㎡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3분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격 가동시 미국 85% 지역에 이들 안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센터 인근 6km에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20km 이내에 미국 화물 철도 회사 BNSF의 대륙횡단선에 위치한 터널이다.

고속도로·철도·항공을 비롯한 운송수단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경우 국경을 넘는 운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 센터는 글로벌 식품기업 엄필드 제품을 대상으로 물류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들이 물류센터로 즉시 입고될 수 있도록 뉴저지 지역에 있는 엄필드 생산공장과 물류센터가 컨베이어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신선도와 물류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향후 엄필드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에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



CJ대한통운 미국법인 CJLA의 직원이 물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빌에도 2만5000㎡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산업전시회 ‘MODEX 2024’에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는 “콜드체인 물류의 경우 보관, 재고관리, 운송 등 전 과정에서 철저한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고부가가치 산업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구축한 90여 년의 물류 운영 경험과 첨단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북미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패밀리카 탈을 쓴 스포츠카...가속·코너링 등 주행성능 ↑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GLC 43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 개최 SUV 실용성에 펀드라이빙 갖춰 흔들림·졸림 거의 없어 안정적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GLC 43)’은 패밀리카의 모습을 한 스포츠카였다. AMG 모델답게 엄청난 출력과 쫓듯한 코너링이 돋보인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AMG 스피드웨이에서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GLC 43, A 35, G 63, S 63 등 다양한 AMG 차량이 준비됐다.

행사는 A 35를 활용한 슬러림 테스트를 시작으로 △GLC 43 트래킹 △S 63 택시 드라이빙 △G 63 오프로드 모험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인상적이던 체험은 AMG GLC 43 트래킹 주행이었다. 체험 시간이 가장 길고 레이싱 서킷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며 차량의 성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다.

지난달 출시된 GLC 43은 기존 중형 SUV GLC에 더욱 스포티하고 역동적

인 외관과 강력한 AMG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결합한 모델이다.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SUV 특유의 실용성과 AMG의 펀드라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의 디자인은 벤츠의 고급스러움과 AMG의 스포티함의 조화가 눈에 띄었다. 기존 GLC의 헤드라이트, 전체적인 라인은 유지하면서 AMG 특유의 세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잘 어우러졌다.

이전 세대보다 전장과 휠베이가 각각 80mm, 15mm 길어져 2열 등 내부 공간이 더 여유로워진 것도 특징이다. 주행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라 뒷자리가 넓지 않았지만 신장 180cm 성인 남자 기준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고급진 외관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주행 성능이었다. SUV는 고속 주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페달을 밟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페달을 꼭 밟자 AMG 특유의 우렁찬 배기음과 함께 부드러운 가속이 진행됐다. 정확한 제로백 테스트를 하진 못했지만 계기판의 숫자가 순식간에 100을 넘었다.

특히 놀랐던 부분은 코너링이다. 통상 SUV는 세단이나 스포츠카보다 차체가 크고 높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한 쪽으로 크게 쏠리거나 흔들리는 등 불안함을 보인다.

그러나 GLC 43은 이러한 편견을 완전히 깼다. 서킷의 험해어핀 구간을 돌 때 차량의 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속

80km가 넘는 속력으로 스티어링 휠(핸들)을 힘껏 돌리면서 코너를 돌아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흔들림과 졸림이 거의 없었고 무게중심이 바닥으로 이동하며 쭉쭉 뻗어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수석에 탄 동승자도 “끝내준다”며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이후 여러번 다양한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낮춰도 보고 더 과격하게 돌아도 봤지만 안정적인 느낌은 여전했다. 오히려 세단인 A 35로 코너를 돌았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역시 AMG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GLC 43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장착됐다. 48V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주행 모드, 노면 상황에 맞게 댄핑 시스템을 3가지 설정으로 조절 가능한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최대 2.5도의 후륜 조향각을 지원해 민첩한 조향 및 편란한 주차를 돕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도 탑재됐다.

벤츠 GLC 43은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단란한 주행과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화려한 주행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격인 차량일 것으로 보인다.

이태민 기자 lkw@ekn.kr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출시

AI기능에 식재료 보관 기능 향상 ‘AI 비전 인사이트’로 스마트 관리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며 AI 가치 경험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제품은 삼성전자의 대표 프리미엄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의 핵심 기능인 AI 기능과 냉각 기능은 유지하고 식재료 보관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존과 외관은 동일하지만 19L 확장된 861L 저장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재료 보관이 가능하고, 대파·부추 등 길쭉한 채소를 손쉽게 넣을 수 있는 ‘간체소 보관실’로 한층 편리해졌다. 또한 강력한 탈취 효과의 ‘UV 정정 탈취기’가 탑재돼 부취균은 살균하고 냉장과 안 음식 냄새를 잡아주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2등급을 획득했으며,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 2단계 설정할 경우 최대 23%까지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냉장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는 선반에 넣고 빼는 식재료를 내부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내장해 냉장고에 보관한 식재료의 종류와 보관 기간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냉장과 우측 도어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구급 포토와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통해 요리 중에도 사진 공유·뉴스 시청·레시피 검색·음악 감상·스마트 홈 기능까지 즐길 수 있다.

출고가는 도어 패널 사양에 따라 481만5000~489만원이며, 삼성닷컴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크라프트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 ‘PGS 3’ 개막

중 상하에서 20~26일까지 진행 우승팀에 PGC 출전 포인트 부여



크라프트톤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 대회 ‘펄지 글로벌 시리즈(PGS) 3’를 개최한다.

크라프트톤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 대회 ‘펄지 글로벌 시리즈(PGS) 3’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PGS는 전 세계 24개 정상급 프로팀이 최강팀의 영예를 두고 경쟁하는 국제 대회다. PGS 3는 지역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4개 팀과 ‘글로벌 파트너십’ 10개 팀이 참가한다.

한국의 경우 ‘2024 펄지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 1’에서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광동 프릭스, 디플러스 기아, 지엔엘 이스포츠가 출전하고, 젠지는 글로벌 파트너십 자격으로 나선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소속을 비롯해, 팀 팔콘스, 슛 투 킬, 레거시가 참가하고, 유럽·중동·아프

리카 지역에서는 페이즈 클랜, 트위스티드 마인드, 나투스 빈체레 등 3개의 글로벌 파트너 팀과 버투스 프로, 하울 이스포츠가 출전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케르베로스 이스포츠와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이 글로벌 파트너 팀 자격으로 나섰고, 프롬 더 퓨처, 이아레나, 아머리 게이밍, 발리타

이 이스포츠가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왔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파트너 팀인 17개팀, 포앵그리 맨, 페트리코 로드와 함께 뉴해피 이스포츠, 디디 팀이 출전한다.

PGS 3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글로벌 콘텐츠 수출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4회에 걸쳐 진행되는 PGS와 이스포츠 월드컵에서 PGC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상위 8개 팀이 PGC 2024에 진출한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PGS와 이스포츠 월드컵에서 PGC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상위 8개 팀이 PGC 2024에 진출한다.

PGS 3의 모든 경기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공식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티톡, 네이버 이스포츠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이태민 기자

A. 젠지와 디플러스 기아는 그룹 B, 지엔엘 이스포츠는 그룹 C에 각각 편성됐다.

그룹 스테이지의 순위에 따라 상위 16개 팀이 파이널 스테이지로 진출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파이널 스테이지를 진행한다. 총 18매치를 통해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한 팀이 PGS 3의 챔피언으로 등극한다.

PGS 3의 총상금은 30만달러로 우승팀에게는 10만달러, 2위부터 24위까지 나머지 팀들에게는 4만달러부터 1999달러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종 순위에 따라 각 팀에게 올 연말에 열리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최상위 국제 대회 ‘펄지 글로벌 챔피언십(PGC) 2024’에 출전을 위한 PGS 포인트가 부여된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PGS와 이스포츠 월드컵에서 PGC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상위 8개 팀이 PGC 2024에 진출한다.

PGS 3의 모든 경기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하며,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 공식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티톡, 네이버 이스포츠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이태민 기자

“공동사업으로 살길 찾겠다” 중소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소조합을 ‘최종소비자’로 규정 B2B 공동행위 허용해야”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포럼’을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연구했다.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 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매출격차 커지고 수익 줄고 제약바이오산업 체질개선 시급

8대 기업 1분기 매출 증가율 11%
중하위일수록 성장 저조 ‘양극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형적 성장은 지속했지만 상위 기업과 하위 제약사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늘어 의료파업에 따른 실적저하를 앞두고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올해 1분기 매출 1~2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연매출 1조원을 넘는 상위 6개 전통 제약사(유한양행·종근당·GC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광동제약) 등 8개사의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 증가율은 평균 1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년 보건산업 통계집’에서 발표한 올해 국내 제약산업 성장 전망치 8.3%를 웃도는 수치로, 엔데믹 이후 꾸준히 11%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종근당만 -1.0%의 성장률로 역성장했지만 9469억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23.3% 성장한 셀트리온, 15.6% 성장한 광동제약 등이 상위권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보령, 14.6%, HK이노엔 15.0%, 대원제약 27.6%, 휴온스 15.5%, 동화약품 19.6%, SK바이오팜 87.5% 등 상위 20대 기업의 성장률이 돋보였다. 특히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처방이 크게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 1140억원을 기록, 상위 20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가장 높은 87.5%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대원제약도 독감 유행, 환절기 등 영향으로 코데인 등 호흡기 질환 약품의 매출이 성장해 전통 제약사 중 가장 높은 27.6%의 1분기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연구원들이 바이오의약품을 연구하는 모습.

그러나 매출 규모가 작은 제약바이오 기업일수록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줄거나 업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매출 344억원을 기록한 부광약품은 전년 동기 대비 -7.6%의 성장률을 보였고 유유제약 -2.6%, 조아제약 -4.5%, 삼성제약 -8.1%, 에이비엘바이오 -80.3%, CJ바이오사이언스 -13.7% 등을 기록했다.

다만 동구바이오제약은 32.4% 성장했고, 경보제약 30.5%, 위타스제약 62.8% 등 일부 중하위 제약사는 30% 이상 성장의 성과를 거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기업 두루 영업이익이 저조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91.5%, 유한양행 -97.5%, 종근당 -2.1% 등 상위 8개 제약바이오 기업 중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거나 적자를 지속한 곳은 절반인 4곳이나 됐다.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는 적자전환했고 동화약품(-46.3%), 일약약품(-36.3%), 현대약품(-51.5%) 등은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다. 메디포스트, 경남제약, 조아제약 등은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한미약품 27.9%, 대웅제약 21.2%, HK이노엔 206.0%, JW중외제약 29.1%, 대원제약 66.8%, 영진약품 75.4%, 동구바이오제약 64.3% 등은 높은 영업이익이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등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플랫폼법 재추진에...“외국사만 득본다” 반대

한기정 공정위원장 “의견수렴 대안 내부검토중” 밝혀
업계 “사전지정제 도입 등 추진강행 의지 표명” 해석
‘EU·美·日 시행중’ 제시에 “국내 환경과 달라” 반박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플랫폼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기업들이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국내외 해외 시장의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플랫폼법 시행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야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매출, 이용자,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다. 사전지정제를 근거로 지배적 플랫폼을 규정한 뒤 사업자 우대 △최대 △멀티호스팅 △기타규칙 등을 규제하겠다는 게 공표된 내용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법안 재추진 입장을 시사한 것이

었다.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은 해외 플랫폼법 사례 등을 참고해 플랫폼법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요지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해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플랫폼시장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DMA는 시장지배적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다.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행 규칙을 세우고, 시장을 일방적으로 주무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도이다. DMA를 근거로 구글, 애플,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TFDPA)을 통과해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투명성 및 공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플랫폼 규제법은 EU의 사전규제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일본 디지털시장경쟁법부가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에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의 경쟁 제한성, 인앱결제 등 모바일 생태계 등을 고려한 타깃형 사전규제 성격의 법률안 제정을 예고했지만 대상을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한정했고, 총리 산하 직속기구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EU의 규제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국내 플랫폼법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해외시장의 상황이 다른 만큼 플랫폼법을 선별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기업에 온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기업 위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

은 자국 기업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규제를 국내 기업 위주로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직구를 금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례적으로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규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플랫폼법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도 “플랫폼법 출발 시기가 외국과 우리나라가 너무 다른 측면이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활성화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을 통해 해외 플랫폼들의 국내시장 활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미국도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입지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독과점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독과점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플랫폼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자칫하면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막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 경쟁 환경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K-라면 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불닭면 인기에 2월 1억859만달러 역대최고...올해 11억달러 기대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 1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사상 첫 연간 수출액 10억달러 돌파와 10년 연속 최대 수출액 경신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은 1억

859만달러(약 1470억원)로 전년동월 7395만달러보다 46.8%나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전체 라면 수출액은 11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이자 지난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기록이 된다.

우리나라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편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내 라면 수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억6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29.2% 성장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 증가율도 24.4%를 기록했다. 여기에 한류 열풍도 한몫했다.

최근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수출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3857억원, 영업이익 801억원을 올려 전

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증가했다.

특히 삼양식품은 서구인 입맛에 맞춘 ‘까르보불닭’ 등의 인기로 1분기 해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나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은 75%로 전년 동기 64%보다 높아졌다.

업계는 국내 라면시장 포화로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필수라 보고, 고환율을 지속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기획] K-스타트업의 도약

위·대장암 내시경 실시간 AI 분석

웨이센 “내시경 검사시 의사가 놓친 위·대장암도 포착”

정확도 95%...태국·베트남 등 6개국 수출 과정 밟아
美 CES 3관왕 호흡기 자가관리 솔루션 ‘코프’ 개발
공황장애·식품 알러지 디지털 치료기기도 허가 준비

내시경 검사 시 위암, 대장암 등의 병변을 놓치는 간과율은 통상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내시경 검사가 1년에 약 1300만건 진행되는 만큼 숙련도 낮은 의료진이 검사하거나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병변을 놓칠 확률이 커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보조해 놓치는 병변을 잡아낸다. 콘셉트로 내시경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 AI 메드테크 기업 웨이센이다. 현재 웨이센의 내시경 의료 AI 솔루션 ‘웨이메드 엔도’는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강남아산병원과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 등에 도입됐다.

김경남 웨이센 대표는 “웨이메드 엔도는 위·대장 내시경 검사시 웨이센이 제공하는 모니터링 내시경 장비와 연결해 검사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AI가 판독 후 의사가 놓친 이상 병변을 찾아 알려주고, 암암 확률도 표현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메드 엔도를 개발하기 위해 웨이센은 강남세브란스 소화기내과 연구교수팀과 협력해 단순 사진 뿐 아닌 내시경 동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에 반영했다. 염증성 위염·위궤양 등 질환과 초기 위암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일본 보건당국의 AI 활용 위 내시

경 검사기 인허가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웨이메드 엔도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웨이메드 엔도는 국내 70개 이상 병원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다. 도입 병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국가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시범 운영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다.

웨이센의 두 번째 상용화 제품인 ‘웨이메드 코프’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한 후 3~5회 차례 기침을 내면 AI가 호흡기 건강상태를 분석해 신호등 형태로 알려주는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환자들의 기침 소리는 정상 범주와 달라 음향 스펙트럼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가진 기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폰이나 TV, 리모컨 등에 달린 마이크에 코프 AI 시스템을 탑재해 일상에서 호흡기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웨이센은 한 가전 기업과 협력해 소아청소년용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랜드 워커히 호텔과도 협력해 워커히 헬스 피트니스 시설인 ROO 클럽에서도 코프 솔루션 체험이 가능하다.



김경남 웨이센 대표

김 대표는 “코프는 정확도가 85%로 병원에서 정진기로 1차 진단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기술혁신상 2관왕을 달성했고, 올해 솔루션을 고도화해 혁신상을 한 차례 더 수상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웨이센은 웨이메드 코프를 베트남 공공의료에 적용하기 위해 하노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종합병원 방문을 위해 긴 단서를 끊어야 해 AI 솔루션으로 검사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동·아랍에미리트·태국의 호텔에서도 코프를 체험할 수 있게 추진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도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웨이센은 공황장애와 식품 알러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공황장애 완화 디지털 치료기기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진과 협력해 제작한 CBT(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다. 생생한 캐릭터가 환자와 대화하고 심호흡을 돕는 등 약물 없이도 환자의 불안을 완화시켜준다는 취지다. 현재 이 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 중이다. 웨이센은 내년 중 식약처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음식을 최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 섭취하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줄인 뒤 다시 증량을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번거로운 과정을 뚫는다는 구상이다. 식품 알러지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아청소년 교수들과 협력해 개발한 후 현재 임상시험 신청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직까지 국내 스타트업 중 해외 수출을 이뤄낸 ‘퍼스트 무버’가 없어 웨이센이 선도하겠다는 목표”라며 “이미 해외 파트너들이 국내 입상이 완료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센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국내 특허등록 29건과 상표 등록 6건, 해외 특허 출원 6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3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4 식약처장상 수상 △CES 2024 3관왕 △CES 2023 4관왕 △CES 2022 1관왕 등의 수상 실적도 가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반도체 수혜 '제2의 동탄'...분상제 적용

분양 탐방

“역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교통호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후분양 아파트라 잔금일정이 빠듯한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마음에 든다.”

지난 17일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 세교2지구 첫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와 빠른 잔금일정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대기줄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뺏다방’ (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오산지역의 관심단지를 엿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전용 84㎡A형(144가구)과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99㎡(377가구)형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84㎡A형 유니트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팬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99㎡형은 여기에 알파룸과 수납특화 침실(유상 옵션)이 추가로 조성됐다. 전용 84㎡A는 4bay, 전용 99㎡는 4.5bay로 구성됐으며 두 타입 모두 판상형 맞닿은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하다.

3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큰 기대를

한신공영 ‘오산세교 한신더휴’ 내일 1순위 청약

교육환경 강점...후분양 잔금일정 빠듯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
오산역 도보 30분 비역세권 아쉬움...KTX·GTX 등 교통호재



전용 99㎡ 유니트 내부 모습



오산세교 한신더휴 모형도

하지 않고 왔는데 유니트를 보니 방도 넓고 평면도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전용 99㎡는 대형 평형이라 관심이 가질 않았는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방도 넓고 수납공간도 많이 당점이 된다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력했고, 중앙정원·선관거등 배치를 배제해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에도 힘썼다. 주차대수는 1183대(세대 당 1.4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가장 가까운 역인 오산역이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2026년 수원발 KTX 정차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수인분당선 연장까지 계획돼 있다. 40대 남성 C씨는 “실명을 들어보니 역과 거리가 있어서 사실상 도보 이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반도체 수혜입지 및 교육환경은 강점

으로 꼽힌다. 단지 북쪽에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남쪽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동쪽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인접했다. 아울러 인근에 오산초와 있고 도보통학권 내에 초교(2025년 9월)와 고교(2026년 3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마트 오산점과 롯데마트 오산점, CGV,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도 지근거리에서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406만원이다. 전용면적별은 △74㎡ 3억9740만~4억2580만원 △84㎡ 4억2760만~4억6900만원 △99㎡ 5억900만~5억582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인근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39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다. 앞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2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시기가 오는 2025년 3월인 후분양 단지라 잔금 일정이 빨라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박지민 월용정약연구소 대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흥행 전망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라 빠른 시세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전세 보증사고 벌써 2조...역대 최고 될라

주택도시보증공사, 1~4월 사고액 1조9062억 전년동기비 76%↑
역대최고치 작년 4조3347억원 넘을 듯...회수율은 17.2% 그쳐

올해들어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보험 사고액이 벌써 2조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5조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에 의한 주택 임대 제도인 전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연합뉴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이같은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계속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있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1~4월 1조2천655억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나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반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지만 2022년 24%, 지난해 14.3%로 계속 감소하

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기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세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보다 전세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강동전세’로 분류한다. 이현주 기자

건설경기 침체 여파, 시멘트·레미콘까지 번졌다

시멘트·레미콘업체 1분기 실적 악화
생산·출하량 줄고 재고 작년비 61%↑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자업체들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출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1분기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지 어려워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천4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멘트 출하량도 13.3% 줄어든 1천53만t에 그쳐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61.3%나 늘어난 1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경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미콘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어들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이 1억3천360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2.3% 줄어든 1억3천50만㎥ 규모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배조용 레미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요즘 레미콘 수요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시멘트·레미콘 수요 감소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천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서 올해 1분기 57억원을 20.0% 줄었다.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천762억원으로 11.1%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기 때문에 3~5월

에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3월에 10%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4월에 그나마 회복됐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효과로 1~2분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줄어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의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하반기부터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는 데다,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겨울이 남아 있다. 건설 선형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5@ekn.kr

할 일이
태산인데...
문서세단은
어느 세월에?
걱정마!
3초면 끝!

자동급지세단기
AutoMax™ 550C



펠로우즈 AutoMax™ 자동급지세단기 3초 만에 550장을 손쉽게 세단하세요!

펠로우즈 AutoMax™ 550C 자동급지세단기는 일일이 나누어 투입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최대 550장까지 세단합니다. 열고, 넣고, 누르면 끝! 문서 세단에 필요한 시간은 3초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단기 앞에 서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자동급지 기능으로 시간 절약
- 스마트시스템으로 보안성 강화
- 젯가드 시스템으로 종이 걸림 최소화
- 자동슬립 모드로 에너지 절약
- CD/신용카드 세단가능
- 1~2장은 수동세단으로 간단히

공식쇼핑몰에서 세단기 구매하고 혜택 받자!

- 혜택 1 | 배송비 무료, 반쪽 배송비도 무료
- 혜택 2 | 이벤트 기간 내 구매하면 적립금이 2배!
- 혜택 3 | 세단기 전용 오일, 페지함 비닐백 증정 (350C, 550C 모델에 한함)
- 혜택 4 | 스마트폰 링 홀더 증정 (한정수량, 소진 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에서 확인해주세요 (mall.fellowes.co.kr)

(주)펠로우즈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헤인빌딩 4층 / Tel.02-3462-2884 / Email. webmaster@fellowes.co.kr / www.fellowes.co.kr



경기도, 카드 소비·생활이동인구 데이터 개방

‘경기데이터드림’ 무료 공개 이동현황·매출 정보 등 제공 28종 데이터 월별 업데이트 “도민 데이터 활용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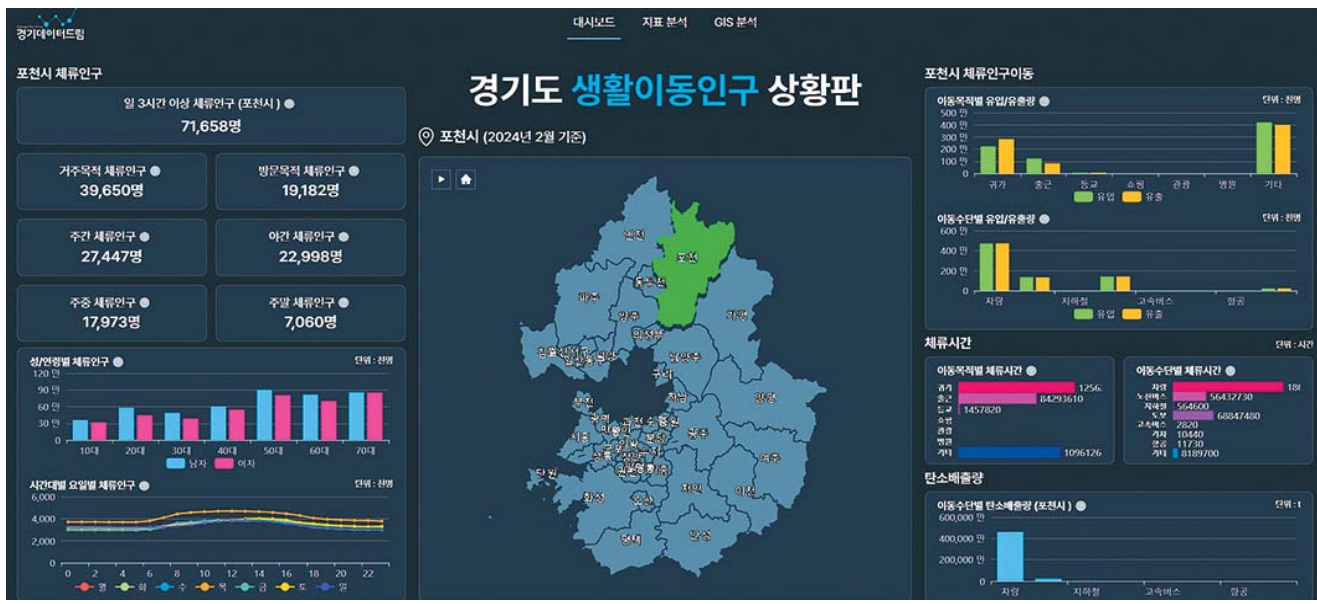
경기도가 19일 전국 최초로 카드 소비,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지역의 요일별 또는 특정 나이대 소비 경향을 알거나 이동 목적이나 수단별로 소비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했던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날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 중 28종을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한 시군 중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포천, 하남, 화성시의 데이터가 우선 공개되었고 추후 고양시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스이동 목적이나 수단별 인구 이동 현황을 알 수 있는 통신 데이터 21종, 스카드사 가맹점과 매출 정보가 포함된 카드 데이터 2종, 스이동 내 기업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업통계 데이터 2종, 스이동 이용자 수와 매출 잔액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신용 통



경기데이터드림 메인화면

계 데이터 3종으로 총 4개 분야 28종이다.

주요 개방 데이터를 보면 우선 5개 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하나)로부터 카드 소비 데이터를 제공한다. 카드사마다 요일별 매출액, 결제, 성별·연령별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생활이동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이동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해당하는 이동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요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창업자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

를 위해 현재 개방된 28종의 데이터는 월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일부 데이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제공된다. 또한 기업분야 1종과 소상공인 3종, 총 4종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방해 올해 최종적으로 32종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소급해 개방하고, 32종 중 15종의 데이터는 사업 내용에 따라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웹 서비스인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을 제작해 경기데이터드림에

서 함께 제공한다. 생활이동인구 상황판은 도내 시군의 이동 목적 및 시간대별로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향후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의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에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민간데이터 대민 공개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데이터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sh31@ekn.kr

경주시, 전기이륜차 배터리 표준 규격 만든다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표준 제정 위해 데이터 수집 용역 착수

경북 경주시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규격 표준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제조업체마다 제각각인 전기 이륜차 배터리 규격을 표준화시켜 이를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주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 BSS) 표준 제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용역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내외 e-모빌리티 현황 분석, 배터리 공유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용역 기간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해소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충전 시간이 회당 4~5시간으로 긴 게 최대 단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주시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의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물론 배터리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속제가 있지만,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이 정착만 된다면 배터리 충전에 따



경주 황리단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에서 전기 바이크 이용자가 직접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는 모습

른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경주시는 일찌감치 사업비 441억원을 들여 배터리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해 왔다.

경주시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경주=송준모 기자 jmsun220@ekn.kr

고양시, DMZ 평화의길 장항습지 생태코스 개방

10월 말까지 운영...문화 체험도

고양특례시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고양 구간을 16일 전면 개방해 10월 말까지 운영(혹서기 7월~8월 제외)한다.

DMZ 평화의길 중 고양구간인 장항습지 생태코스는 DMZ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와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노선이다.

DMZ 평화의길 장항습지 생태코스는 주요일부 토요일까지(주 4회)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평화의길’ 누리집(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리’를 통해 사전 신청(신청순 20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자연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근구 기자 kkjoo0912@ekn.kr

해당 코스 참가자는 접경지역 인근 생태문화와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한강하구 습지 중 유일하게 탐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 아름다운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DMZ 평화의길 장항습지 생태코스는 주요일부 토요일까지(주 4회)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평화의길’ 누리집(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리’를 통해 사전 신청(신청순 20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자연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근구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저출생 해결 위해 22개 시군과 협력

휴일 긴급 돌봄 서비스 연장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도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2개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실행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4월 ‘우리 동네 돌봄 마을(농촌형)’이 개소되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예천 등에도 상반기 중 39개의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김천시와 영주시는 주말 및 공휴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칠곡군은 5월부터 돌봄센터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한다.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구미시는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소해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경산시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및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단기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영주시, 경주시, 의성군 등은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영주시는 주말마다 초등학교 대상 예술 놀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 중

이다. 또한, 유엔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대출 한도와 지원 금리를 상향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5월 추정 예산이 집행되면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이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극복 성공 모듬도 활발히 진행돼 23억 원을 넘었으며, 도민, 시민단체, 기업, 출향인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안동=정재우 기자 jiw5802@ekn.kr

화성시,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31일 개막

내달 2일까지 전국항 일원서 개최 야간 EDM 공연·AR 체험 등 행사

경기 화성시는 19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전국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오는 31일 해양수산부 주관 제29회 전국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수도권 최고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전국항 일원에서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을 콘셉트로 열리며 이번 축제에서는 해양 도시로서의 매력을 돋보일 수 있는 요트·보트·유람선 등 해상 승선 체험과 편 보트, 수상자전거 등 해양 레저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문화 행사가 운영된다.

특히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위



밤바다에서 요트를 즐기는 시민들 모습

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AR) 체험과 야간 EDM 페스티벌 개최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지난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던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요트·유람선 발매 승선, 불꽃놀이, 이색요트 꾸미기 대회 등으로 색색의 배로 밤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육·해상에는 요트와 보트를 상시 전시해 화성시 해양레저 관광·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축제가 될 것”이라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화성시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화성시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축제를 바가지요금·안전사고·쓰레기가 없는 ‘3無 축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자신·가격·원산지표시를 관

광객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메뉴와 가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송인호 기자

경북도의회, 지진 안전 문제 재난문자 송출 지침 추진

경북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이 최근 경상북도의 지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가 최근 몇 년간 큰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상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침을 마련하고,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주민들의 지진 대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정재우 기자

평창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공직비리·행정오류 사전 차단

강원 평창군은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사전 차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재·세정,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청백-e 시스템’ △각각의 담당업무 수행 중 부패발생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자기진단시스템’ △개인인 부서의 청렴윤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고도화 계획은 청백-e 모니터링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점검 주기를 월별에서 주별로 단축하고, 미조치 건을 내부 청렴게시판에 공개한다.

또 부서별 교육지원으로 자기진단표 작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

가는 청렴설명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매월 공개, 내부통제 실적 저조 부서는 내년 청렴캠페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부서별 청렴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반부패 청렴다짐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 청렴 추진 종합계획의 본격 가동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신고센터 운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 문자, 찾아가는 청렴설명회, 청렴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고도화를 통해 공직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조직 내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손실이나 사고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다.

평창=박예스터 기자 ess003@ekn.kr

동두천시의회 Dongducheon City Council. 더 크게 들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의 최적지는 “동두천”

“韓 정부 부채, 2045년 GDP 추월 전망”

블룸버그...“고령화 여파, 현재 부채 57%, 2030년 70% 2050년 120%”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여파로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권효성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경 70%에 이어 2045년경 100%에 이르고 2050년경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해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할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경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성준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 ‘건치아동 선발’ 부활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구강 보건의 날’ 금은동·각구 대표 시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했던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어린이를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자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마다 학교대표를 선발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마다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선출된 건치아동 중 이달 23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교차검진과 인터뷰를 거쳐 건치아동 서울시 대표를 뽑는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금·은·동(각각 남녀 1명씩) 건치아동과 각구 대표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

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난 뒤 코엑스 1층 동편 로비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부스행사와 무료 구강검진 등 현장 이벤트를 개최한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치과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anytoc@ekn.kr

에코프로, 임직원 자기 계발 적극 지원

‘시차 출퇴근제’ 도입...‘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신설

에코프로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젊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반반차 휴가 제도’도 시행한다. 기존 4시간이었던 반차 휴가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반차를 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용무 등에 사용 가능한 ‘카드’가 생김 셈이다.

에코프로는 연차 100% 사용자 추가로 유급 휴가 3일을 부여하는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갖는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직원에 11월 안에 이를 모두 사용했다면 12월에도 사용할 수 있다. 플러스 휴가 증납은 연차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는 임직원들의 휴가패턴을 조사한 결과 12월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 것에 착안해 플러스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가 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국제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앞뒤

전문가들 “금·은·구리 가격 더 오를 것”

뉴욕상품거래소, 6월물 국제 금 선물 2417.40달러에 거래 금값 2300달러 급락 후 반등세 글로벌 투자은행 ‘투자노트’ “금·은·구리 선호” 주장



골드바

로이터/연합

국제금값 시세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는 물론 백금마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6월물 국제 금 선물가격은 온스당 2417.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값은 지난달 장중 온스당 243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2300달러대로 급락했지만 이달들어 반등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날엔

금값이 1.5% 가까이 치솟았다.

통상 금은 구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무이자 자산인 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이거나 금리인상기에 금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인하는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제에 민감한 원자재들도 덩달아 상승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대책이 힘입

어 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커진 것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안전자산 성격이 짙은 금과 은, 구리에 민감한 귀금속인 은 7월물 선물 가격은 온스당 31.26달러를 기록해 2013년 1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런던상품거래소에서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현물가격은 톤당 1만 398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1만 730달러·2022년 3월 11일)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 사용되는 백금 7월물 선물가격 역시 온스당 1090달러에 거래를 마감해 약 1년만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은·구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금·은·구리’ 테마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 은, 구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삭소뱅크는 이어 백금 가격이 온스당 113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JC 오 하라 최고기술전략가도 “금 가격은 더 높게 뛰어 4월 최고가를 돌파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기술적 목표가를 2600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는 가격 전망과 관련해 시세가 30달러선을 돌파할 경우 35~37달러대 이전까지 저항이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신종론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사 ING의 이와 맨티 원자재 전략가는 연준이 금리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정학적 갈등이 가격에 반영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분기에 금값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에 금값이 온스당 평균 2250달러, 올 한 해엔 평균 221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권오갑 회장, 외대 명예박사학위 받아...“경제발전·사회통합 기여”

(HD현대)

권회장, 1975년 외대 졸업

2021년 전문 경영인 최초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

대기업 최초 ‘1% 나눔재단’ 출범

매년 80억 어려운 이웃에 전달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담사를 하고 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지난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일 HD현대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권회장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 기여한 것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권 회장은 1975년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복무한 뒤 1978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그는 서울사무소장, HD현대오일뱅크 대표 등을 역임하며 HD현대를 글로벌

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업황 부진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4년 HD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고강도 개혁을 단행하면서 2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도 높였다.

2019년 11월 HD현대 회장 취임 후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기준 HD현대의 시가총액은 50조 1000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4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권 회장은 2021년 한국경영학회로부터 전문경영인 최초로 ‘대한민국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지난해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도 받았다.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 급여에서 1%를 기부하는 ‘1%나눔재단’도 출범시켰고, 매년 80억원에 달하는 재원

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HD현대 희망재단’도 설립했다. 울산공업학원과 현대학원 사무국장 등을 맡으면서 추곡과도 인연을 맺었고 32년째 관련 일을 수행 중이다.

권 회장은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사명감과 원칙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해는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도 양성하지만, 그 이전에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착실하게 공부하고 어떤 위치든 각자 맞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선량한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라며 “대학의 운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경영 못지않은 큰 보람이고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진공, ‘한국로지스틱스대상’ 공기업 대상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전용 선박 확보 등 중소기업 정책 지원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24 한국로지스틱스대상’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로지스틱스대상은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지난 1998년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 기여한 기업과 단체,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중진공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중소벤처기업 전용 선박 확보 △최신 물류 통합 분석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스마트물류 포럼 개최 등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수출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주최 ‘2024년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동호 해외진출사업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업을 위해 더욱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체 항공수출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 최저 물류비용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마사회 “현정화·김재범에 원포인트 레슨을”

탁구·유도 대결 및 레슨 이벤트...선정팀, 마사회 탁구단·유도단과 대결

한국마사회가 ‘탁구여제’ 현정화·‘유도영웅’ 김재범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마사회는 현정화·마사회 탁구단 감독 및 김재범·마사회 유도단 감독이 탁구·유도 대결 및 원포인트 레슨을 펼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자신의 탁구·유도 실력을 스포츠 영웅들과 겨뤄보고 싶은 탁구·유도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탁구는 5인 1팀, 유도는 3인 1팀으로 꾸려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팀은 현

정화·김재범 감독이 이끄는 마사회 탁구단·유도단과 대결을 펼칠 수 있다.

대결에 이어 현정화·김재범 감독이 직접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참가 동호인들의 숨은 재능과 가능성을 끌어올려줄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도전기와 레슨은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인 ‘마사회TV’에서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콘텐츠에 출연해준 참가자들에게는 상품권 등 소정의 선물을 함께 수여된다.

이벤트 참가신청은 유튜브 ‘마사회TV’ 채널 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가능



한국마사회 현정화 탁구단 감독·김재범 유도단 감독 탁구·유도 대결 및 원포인트 레슨 이벤트 포스터

하다. 신청기간은 탁구단은 17일부터 26일까지, 유도단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탁구 이벤트는 오는 6월 1일 인천 청라

에서, 유도는 5월 25일 경기 안양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안내는 유튜브 ‘마사회TV’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 치료길’ 활짝...고령층 ‘반색’

■ 연골재생술 등 다양한 치료법, 관절염 환자에 ‘희망봉’
지속적 통증 유발에 삶의 질 저하...년진료인원 400만명
땃줄제대혈·자가골수서 추출, 거부반응 거의 없어 안전
회복 더디고 마취 힘든 환자는 자가골수 주사치료 권장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물렁뼈)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자동차 타이어를 계속 굴리면 야금 야금 닳아 없어지듯 인체의 연골 또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모한다.
한 번 망가지면 자연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마모나 손상으로 뼈의 머리(골두)가 드러나면서 골두끼리 부딪치면 통증이 일어난다. 퇴행성뿐 아니라 다양한 사고나 운동·레저 중 부상으로 연골 자체가 파열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준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허준영 교수(정형외과 전문의)는 “퇴행성 관절염은 사망에 이르는 질환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면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계속 늘어 연간 진료인원이 최근 400만 명에 이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50대 초반 폐경기 가 오면 여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

하면서 몸 안의 뼈 양도 줄고 연골이 약해져 손상되기 쉽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부위가 무릎이다.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소염진통제 등 약물이나 물리치료, 근육강화 운동 등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진행이 되면서 연골 이식·재배치 시술이나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에 새로운 희망봉으로 등장한 것이 ‘줄기세포 치료’다. 이미 2012년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재생술이 시작됐다.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면서 현재는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다만, 줄기세포 치료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희망봉으로 등장하면서 잘못된 정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최신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고령층에도 부담없는 치료법 등장



국내에서 연간 400만명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줄기세포 이식의 사전 단계인 연골재배치 시술을 하고 있다.

무릎 연골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중 유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우선 ~에서 채취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식 거부반응이 없도록 만들어서 인체에 이식 가능한 제품이 순수 국산기술로 나와 임상에 적용 중이다.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은 성인 줄기세포에 비해 분화능력이 뛰어나고, 나이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또한, 줄기세포의 숫자가 충분히 마모된 면적이 넓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연골 자체의 재생력을 높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도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연세병원 박영식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연골재생술은 자가연골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병원장은 “기존의 손상된 연골을 치료하지 않고 연골재생술을 진행하면 재생된 연골 또한 견디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골재생술 고려 시 오다리(흰다리) 증상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치료계획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수술 부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국가 신의료기술로 입증받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치료)도 있다.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면서 무릎이 불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회복 기간이 길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권장된다.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진단 기준인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L)’ 2~3등급과 연골 결손 정도 국제

표준기준(ICRS) 3~4등급에 해당되는 환자의 무릎 관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기술로 확인됐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 논문이나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환자의 장골능(골반뼈 근처)에서 자가 골수를 채취한 뒤 원심분리기로 줄기세포를 분리·농축시켜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방식이다. 자가 골수줄기세포가 무릎 관절내 작용해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본인 몸에서 추출한 골수를 농축시켜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 위험이 낮고, 시술 당일 걷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다.
기존 약물 주사 대비 통증 완화 효과가 높고 부작용 위험은 낮은 치료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추출·농축된 줄기세포를 치료에 필요한 부위에 정확히 주사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 잘못 주사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인체조직인 늑골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앓은 동종 초자연골을 무릎에 도포하는 방식의 치료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의뢰현장에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인대 손상 등 관절부위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겐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anytoc@ekn.kr



류상완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대동맥은 심장에서 우리 신체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크고 굵은 혈관이다. 온몸의 장기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기 때문에 ‘인체의 고속도로’로 비유된다. 고속도로에 손상이 발생하면

중증질환 대동맥박리, 신속·정확한 치료가 생명

전문의 칼럼
차량의 흐름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대동맥박리’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의 안쪽 벽이 찢어진 상태로 대동맥류와 함께 대표적인 대동맥 질환이다. 대동맥박리가 진행되면 안쪽 혈관벽이 찢어지기 때문에 신체기관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급성 대동맥박리가 발생하는 경우 40%의 환자들은 병원에 오기 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박리가 중증·응급질환인 이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 대동맥류 및 대동맥박리 환자는 지난 2022년 3만 6272명을 기록, 4년 전인 2018년(2만 7429명)과 비교

해 32% 크게 늘었다. 연평균 약 7.3%씩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동맥질환은 △인구 고령화 △식생활 습관 △고혈압 △흡연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대동맥박리는 발생 직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률이 1%씩 상승하며, 48시간 내 수술을 받지 않으면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료팀의 신속·정확한 치료가 중요하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발생 부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응급 정도에 차이가 있다. 가장 응급한 경우는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인 상행대동맥에 박리증이 발생한 경우다.
이때는 진단 후 가능한 조기에 수술적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부위에 발생한 대동맥박리도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이거나 파열이 발생

했다면 즉시 수술 또는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혈관질환과 마찬가지로 대동맥질환도 동맥경화의 유발과 악화가 위험요인인 만큼 위험요인의 조절과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으로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 흡연·비만·스트레스 등이 있다.
대부분의 혈관질환은 뚜렷한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되는 ‘대동맥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박리증이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극심한 통증과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대동맥질환은 조기검진을 통한 진단과 개인 관리가 중요하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흡연력이 있는 65세 이상, 혈관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경우 혈관검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햇빛 적외선도 피부손상·노화 유발 ‘주의’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생활화 필수
태양광선은 적외선 52%, 가시광선 34%, 자외선 5%로 이루어져 있다.
자외선은 피부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자외선 A는 피부 진피까지 침투하여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자외선 B는 강력한 세포 파괴력이 있고 심하면 피부가 탄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외선에 의한 열도 피부 손상과 노화에 영향을 상당한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부 온도가 증가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불필요한 혈관 생성이 유발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붉고 균일하지 않은 피부 톤으로 바뀌게 된다.
피부와 전문의 임이석 원장은 “일반적으로는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면서 “햇빛은 자외선뿐 아니라 적외선, 즉 열(he

at)도 방출하는데, 이 또한 피부를 손상시켜 피부노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연중 5~6월에 가장 강해지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적절하게 차단하려면 우선 자외선 차단제(선블록)를 생활화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고, 햇빛이 강할 때는 등급의 지수가 높은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덧바른다.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양산을 쓰고, 햇빛이 강한 야외 활동 시 등산을 할 때 자외선 차단용 스킨을 착용하는 등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2시간 내외의 간격으로 덧바른다.
임 원장은 “이미 과도한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인해 피부 손상이 많이 진행됐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의회!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만들기 위해 봉화군의회는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화합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의회가 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Bonghwa County Council

2인승 전기 비행기의 도약

EE칼럼

Energy&Environment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지난 번 에 칼럼에서 전기 비행기 시대를 알리는 첫번째 소식을 전했다.

특히 1인승 전기 비행기를 통한 개인 비행기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이 기술을 주요 제조 회사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 2단으로 2인승 전기 비행기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인승 전기 비행기는 모든 기체 형태가 Multicopter 형태의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형 기체였다.

99% 기체가 100% 배터리 방식이었고 오직 Zapata라는 프랑스 회사만이 Hybrid방식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을 설명 드린 바 있다.

2인승 기체 개발 현황을 보면 이착륙 방식으로는 수직 이착륙 방식과 기존 전통적인 활주로 이동 후 이착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추진력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100%

배터리 방식을 통한 추진 기술과 Hybrid방식의 추진 기술의 두 가지 추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Multicopter 형태와 wing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100% 배터리 추진 방식을 통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기체 개발 회사로는 독일의 블로콥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도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어 이비 회사가 대표적이다.

에어 이비가 개발한 기체인 에어 윈은 충전 시간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행 가능 시간은 40여분이고 최대 비행 거리가 약 100km이다.

에어 이비는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진행하는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고 현재 3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인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 실험을 위한 미국내 거점 확보를 진행 중이다.

에어 윈의 활용 시장은 군사용, 농업용, eVTOL 비행사 훈련용, 화물 운송용 등이 있다.

이미 800명 이상의 고객 사전 주문과 대기자 명단을 확보한 에어는 항공기 인증 후 첫 번째 에어 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항 기체는 자율 비행 기체로서 기체 안에 조종 기능이 없다. 중국의 항공정으로부터 기체 안전 인증을 받았다. eVTOL기체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만 중국의 안전 인증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 기체를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가 이 회사 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체 판매 가격이 약 34만불인데 2인승 Robinson 헬리콥터의 가격이 약 318,000불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큰 판매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니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비행 속도가 시간당 200m를 목표로 하고 비행 시간은 약 40분을 목표로 한다.

도로니 항공은 이 기체를 경량 스포츠 비행기(Light Sport Aircraft)로 안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한다.

기체 가격은 최고 40만불까지 고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로콥터는 유럽의 항공청인 EASA에 안전 인증 신청을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인승 기체의 비행 시연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파리 외곽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 단계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이 고갈되어 독일 정부에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회사 운영의 향방에 불안함이 높은 상태다.

금투세 갈등과 개미의 심리

데스크 칼럼

김현우

자본시장부장-부국장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르면 금투세로 인해 이탈할 자금을 대략 1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는 대만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TWS 지수'가 한 달 만에 8700선에서 5600선까지 36% 가량 급락하는 충격을 겪었다.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철저히 2013년 재추진했고, 이 역시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2016년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대만의 사례는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자본시장에서 금투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틀처럼 금투세 시행으로 선진자본시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단 1%의 큰손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세수 효과 보다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투자자의 심리적 이탈을 우려한다. 일종의 '부자과세'라는 비판이다.

금투세 갈등을 지켜보면, 지난 정부의 종합 부동산세가 오버랩 된다. 과세의 근거나 방식, 징벌적 세금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중부세가 불러온 갈등이야기다.

당시 중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전체의 3% 남짓이었지만, 해당도 안되는 대를 긴 자가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이 민감한 것 처럼.

금투세 갈등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환경에서 고전투구하는 개미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다. 한번도 없었던 후시라도 생길지 모를 5000만원이 넘는 '개미의 달콤한 꿈'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말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 22% (공제금액 250만원)를 내고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올해 4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있는 선진자본시장 때문이 아니라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K중시 밸류업을 위한다면 당정 모두 과감해져야

기자의 눈

양성모 자본시장부 기자
paperkiller@ekn.kr



"한국 주식시장의 난이도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누가 이런 어려운 주식시장에 뛰어들려 하겠나? "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니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주와 같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 사들이며 이에 화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세부안을 보면 강제성이 전혀 없어 팽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간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고, 급등했던 일부 종목들의 주가 또한 뒷걸음질 쳤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으로 15.4%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된다.

배당 분리과세는 기업인들의 배당 의욕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현재 가진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인은 배당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는다"면서 "하지만 배당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배당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도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다. 기업을 남에게 넘겨주기보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걸 선호하는 국내 정서 상 비교적 낮은 비율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억누르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거다.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주식 매매차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이 과세되는 점을 두고 도입론자들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부자과세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로 폐지론자들은 증권가

래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이는 이중과세며 큰 손들의 이탈로 이어져 국내 증시가 한바탕 흥역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투세 도입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된다. 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없이 무조건 도입하면 시장에 주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법인에게 감세해주고 개인에게만 독박과세를 부과하는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의한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 중 일부만 국내 시장으로 유(U)턴을 한다면, 또 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서로 소통하며 더욱 과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에너지 경제의 힘, 삶의 근원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효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박태현
청양빌딩 5층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대표전화 02-850-0114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대표팩스 02-867-0453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광고문의 02-6749-3124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구독문의 02-6749-3125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 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skyline 188

KTolleh 219

SKBtv 504

LG 173

http://www.welfarenews.net/

SAMSUNG



천만 대의 무풍이 만들어진 건
 직바람에 찌푸릴 일 없는 여름 [무풍 모드]
 AI로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AI 절약 모드]
 방방곡곡 빠르게 시원해지는 여름 [하이패스 서큐 냉방]

천만의 선택 BESPOKE AI 무풍에어컨



무풍에어컨 천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뉴질랜드 투어, 신라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1,000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24년 4월1일~6월30일 24년 무풍에어컨 셀러리 신규 구매 고객 대상,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A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A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 *AI 절약 모드 사용 시 설정 온도가 최대 2도 상승할 수 있음 * 무풍에어컨 천만대 판매 관련, 2016년 1월~2024년 3월 일체의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풍에어컨(가정용, 상업용)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시스템 에어컨 누적판매량 기준

세상에 없던
시 라이프.